

SUNWOOK KIM &

 DRESDNER
PHILHARMONIE

그랜저를 하이브리드하다.

Grandeur Hybrid



연비, 주행성능, 공간 활용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16.2Km/L의 연비 | 더 향상된 출발 가속력 | 426L의 트렁크 용량

•하이브리드 전용 고전압 배터리 평생보증 (최초 개인 구매 고객 한정, 법인/리스 제외)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복합 16.2km/l (도심:16.1km/l, 고속도로:16.2km/l) | CO₂ 배출량: 87g/km | 배기량: 2,359cc | 공차중량: 1,675kg | 6AT(동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시스템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커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PIANIST | 김선욱
SUNWOOK KIM

CONDUCTOR | 미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김선욱 & 드레스덴 필하모닉

SUNWOOK KIM & DRESDNER PHILHARMONIE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번, 교향곡 4번



2017. 7. 8 [Sat]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협찬 HYUNDAI 문의 02.599.5743

티켓 R 20만원 S 14만원 A 9만원 B 5만원 예매 SAC[™]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 Marco Borggreve

DAI

인합: 2,359cc
및 공조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THE CONCERT

오늘 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함께 독일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2년 만에 네 번째 내한공연을 갖습니다. 2013,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부임해 고풍스런 동독 사운드에 현대적 매력을 부가한 첼리스트 출신의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내한 공연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연합군의 포격으로 도시 기반이 붕괴됐지만 비범한 클래식 문화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모 교회, 츠빙어 궁전과 같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즐비한 드레스덴 구시가지 한 복판에 위치한 문화궁전(쿨투어팔라스트)이 올해 4월, 4년 동안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통독 이전부터 문화궁전을 본거지로 삼아온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악단의 브랜드 가치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930년대부터 실력파 유명 지휘자들을 연이어 맞이하면서 독일 악단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울 반 켐펜을 시작으로 아르투르 니키슈, 헤르만 아벤트르트, 한스 크나퍼츠부쉬, 에리히 클라이버, 요제프 카일베르트 등 금전으로 살 수 없는 풍부한 명장들의 경험이 악단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동독 시절, 쿠르트 마주어로 상징되는, 과장을 배제하고 기품을 가득 머금은 고풍스러운 사운드로 유명했던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명장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 미하엘 잔데를링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세워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악단에 꾸준히 이어 내려온 독일 관현악의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를 계승하는 한편, 첼리스트 출신답게 현악 파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악단의 개별적 기능과 앙상블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악단의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생하는 잔데를링의 독특한 방식은 메인 레퍼토리인 브람스 교향곡 4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연에는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 김선욱이 당시 대회 우승을 확정 지은 결선곡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당시,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김선욱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대회가 배출한 우승자들의 결선 연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빛나는 명연으로 손꼽힙니다. 브람스를 비롯해 모차르트-베토벤-슈베르트-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피아노 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특유의 기교와 에너지로 남김없이 발산하는 김선욱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1년 전, 대다수 국내팬들이 리즈의 승리를 직접 지켜볼 수 없었지만, 더욱 성숙해진 음악인으로 돌아온 김선욱이 한국 관객 앞에서 다시금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올해 김선욱은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탐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 새롭게 녹음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집이 올해 상반기 발매됐고, 연말에는 브람스 협주곡 2번을 서울시향과 연주하면서 브람스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점검합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할 잔데를링과는 연초 독일에서 필른 필하모닉과 브리튼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면서 절정의 호흡을 선보인 바 있어, 이번 내한 공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이 둘의 조합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2017 아시아 투어

- 6월 24일 마이치현 예술극장, **나고야**¹
- 6월 25일 도쿄로자와 시민문화센터 뮤즈, **도쿄로자와**²
- 6월 26일 무사시노 시민문화회관, **도쿄**³
- 6월 28일 호크트 문화홀, **나가노**⁴
- 6월 29일 쇼와여대 히토미기념강당, **도쿄**
- 7월 1일 더 심포니홀, **오사카**⁵
- 7월 2일 무자카와사키, **가와사키**⁶
- 7월 4일 도쿄 예술극장, **도쿄**
- 7월 5일 아크트시티 하마마츠, **하마마츠**⁷
- 7월 7일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⁸
- 7월 8일 예술의전당, **서울**⁹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PROGRAM

피아노 협주곡 1번 d 단조, 작품번호 15 (협연: 김선욱) [approx. 50min]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Piano: Sunwook Kim)

1. 마에스토소

Maestoso

2. 아다지오

Adagio

3. 론도: 알레그로 논 트로포

Rondo: Allegro non troppo

인터미션

Intermission

교향곡 4번 e 단조, 작품번호 98

[approx. 40min]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1. 알레그로 논 트로포

Allegro non troppo

2. 안단테 모데라토

Andante moderato

3. 알레그로 지오코소

Allegro giocoso

4.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 파시오나토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PROGRAM NOTE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피아노 협주곡 1번 d 단조, 작품번호 15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브람스의 첫 협주곡이자 첫 관현악곡인 이 작품의 유래는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2월 브람스의 멘토였던 슈만이 자살을 기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브람스는 곧바로 뒤셀도르프로 달려가서 슈만 가족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마음이 애뜻한 연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해 3월(또는 4월), 브람스는 친구 요아힘에게 편지를 보내 3악장으로 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 브람스는 이 소나타를 바탕으로 교향곡을 작곡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선 1악장을 관현악곡으로 고쳐 써서 요아힘과 클라라에게 비평을 구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워낙 스스로에게 엄격한 성품이었던 브람스는 그 과정에서 악곡의 결함과 관현악법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이제 '좌절된 교향곡'은 피아노 협주곡으로 변모했다. 작업은 예상보다 더디 진행되어, 1856년 여름에 슈만이 세상을 떠나고 그 해 가을이 되어서야 브람스는 첫 악장을 클라라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2대의 피아노로 몇 번 연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해 말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요 며칠 저는 협주곡의 1악장을 정서했습니다. 요아힘은 마지막 악장을 무척 기대하고 있지요. 지금은 당신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다지오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클라라의 초상'으로 언급된 아다지오 악장은 이듬해 1월에 완성되었다. 브람스는 그 악보를 요아힘에게 보내 비평을 구했는데, 그때 브람스는 악보에 라틴어로 "주의 이름 아래 오는 자에게 축복 있으라!"라는 기도 문구를 기입했다. 어쩌면 그는 이 악장

에 슈만과 클라라에 대한 경의와 위로를 담고자 했던 것일까? 다만 이 문구는 나중에 삭제되었다.

한편 마지막 론도 악장이 확정된 것은 1857년 5월이었다. 그러나 브람스는 1858년 2월까지 요아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완하고 세부를 수정했다. 결국 완성된 협주곡의 초연은 1859년 1월 22일, 하노버 궁정극장에서 이루어졌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1악장)과 피아노 협주곡 3번(3악장), 그리고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조 등에서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브람스 고유의 '교향적 협주곡'의 시발점이 되었다. 피아노 파트는 고도의 테크닉과 스태미너를 요하지만 관현악을 압도하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로 맺어져 있고, 전곡은 유기적이면서도 명쾌한 구성으로 고전파적인 형식감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관현악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면이 없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욕과잉'을 느끼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 곡은 정열 넘치고 패기 충만했던 청년 브람스의 초상을 전하는 가장 뜨겁고 생생한 증언이라 하겠다.

1악장: 거대하고 장엄한 첫 악장은 마치 천둥 치듯 강렬한 관현악 총주로 출발한다. 이 개시부는 초자연적 울림과 오르간 포인트(지속저음)의 부각이라는 면에서 다분히 '합창 교향곡(베토벤)'의 개시부를 떠올리게 한다. 계속해서 관현악에 의한 서주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거의 1주제만 나타나며 투쟁적 분위기와 숙명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서주의 격렬한 요동이 차츰 가라앉으면 주부로 넘어가고 이내 피아노가 등장한다. 제시부에서는 투쟁적 국면으로 나아가는 제1주제와 지극히 차분하고 서정적인 제2주제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특히 풍부한 표정을 머금고 서서히 부풀어 올라 무한한 동경을 자아내는 제2주제부의 감흥이 각별하다. 피아노의 강렬한 타건과 함께 시작되는 발전부에서는 피아노와 관현악이 마치 전투라도 벌이듯 격렬하게 맞부딪히다가 폭발적인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재현부 이후에 음악은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른 다음 걱정적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1

올림 속에서 마무리된다.

2악장: 명상적 기운과 종교적 기품으로 가득한 아다지오 악장이다. 피아노와 관현악이 응답풍의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주요 주제는 첫머리에서 바순이 제시하며 피아노의 정교한 서법이 두드러진다. 어떤 이는 이 악장을 들으면서 브람스가 언급했던 '클라라의 초상'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슈만을 기리는 진혼곡의 이미지를 거론하기도 한다. 침착하고 사색적인 흐름 속에 깊은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듯하며, 감동적으로 치솟는 클라이막스에서는 그 모든 상념과 감정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듯하다.

3악장: 경쾌하고 활력 넘치는 론도 피날레 악장이다. 다시금 펼쳐지는 투쟁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역경과 고뇌를 떨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이 악장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론도 주제는 다성적 요소와 당김음을 지니고 있어 바흐의 협주곡을 연상시키며, 두 번째 부주제는 카논 풍으로 등장하여 역시 바로크적 기법을 가리키고 있다. 아울러 중간의 단조 부분에서 푸가토를 도입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수법은 베토벤의 협주곡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에서 음악은 '환상곡 풍으로'라고 지시된 짧은 카덴차를 거친 후 코다로 넘어가 잠시 멎을 부리는 듯 느긋한 흐름을 보이다가 밝은 D 장조로 힘차게 마무리된다.

This work is representative of Brahms' early composing style and it was one of the first to be written in a concerto form. Brahms wrote the piece in between years 1854 and 1857 and it was first performed by Brahms as the pianist and Joseph Joachim as the conductor in November of 1859 at Staatsoper Hannover. When the concerto was first revealed, it was criticized by the public and even hissed by

some audiences. However, by the 20th century, the concerto was turned into a piece that is very much loved by virtuosic pianists.

Brahms' composition style can be described as a combination of Bach's graceful solemnity, Beethoven's masculine energy and Schumann's romantic lyricism and unlike Wagner and Liszt, who strived towards modernism, Brahms was a musical conservative and a traditionalist. Brahms started to establish his identity as a composer since he was 11 years old and throughout his lifetime, he was a perfectionist like Beethoven, throwing away some of his compositions or taking almost 22 years to compose his first symphony.

The first movement **Maestoso** begins with fierce trills in fortissimo from the orchestra and once the piano solo is introduced, although it may seem as if it is moving away from the intense opening, it is not long until the piano builds up the tension to repeat the initial fortissimo trills with both hands, in octaves. The piano and the orchestra explore shifts of keys until the movement ends with a grand d minor chord. In contrast, the second movement **Adagio** is known to be a lovely portrait of Clara Schumann. The fierce trills from the first movement are now turned into a lyrical ornament in the key of D major and the orchestra and the piano frequently exchange the serene melody line to form a conversation. The last movement **Rondo: Allegro non troppo** returns back to d minor and Brahms gives an opportunity to let the pianist's virtuosity shine through cadenzas as well as keeping the melody interchange between the piano and the orchestra.

PROGRAM NOTE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교향곡 4번 e 단조, 작품번호 98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브람스는 이 작품에 이르러 '낭만적 내용과 고전적 형식의 융화'로 일컬어지는 독자적 교향곡 양식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곡을 끝으로 더 이상 '교향곡'은 남기지 않았다. 사실 이 곡은 브람스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나 싶은데, 작곡 과정에서 상당 기간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그 진척 상황이나 정보를 비밀에 부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런 행동이 브람스에게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 곡에 대한 보안에는 좀 유별난 구석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무척 과감한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세 교회선법을 도입하고 바로크 변주곡을 구사하는 등 과거의 음악양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브람스가 이 곡을 완성한 후 빈의 살롱에서 친구 브뤼와 함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판을 연주했을 때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내비쳤다. 비평가 한슬릭은 "지독히 영리한 두 사람에게 머리를 두드려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고, 전기작가 칼베크는 브람스에게 스케르초 악장을 휴지통에 던지고 피날레는 따로 출판하라고 충고했다. 심지어 절친했던 클라라 슈만과 헤르초겐베르크 부인마저 지나치게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1885년 10월 27일 마이닝겐 궁정에서 이루어진 정식 초연은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공작은 대만족을 표시하며 1악장과 3악장의 재연을 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교향곡은 빈에서 남서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뤼르추슬라크에서 작곡되었다. 브람스는 1884년과 1885년에 여름휴가를 보내며 '교향곡 4번'과 여러 가곡을 쓴 이 산간마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남겼다. 우선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법과 같은 달밤의 하루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지는군요." 또 지휘자 한스 폰 벨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이 작품이 이곳 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버찌들은 결코 단맛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뤼르추슬라크의 버찌는 정녕 이런 맛이었을까? 이 교향곡은 대체로 어두운 색조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씩씩해진 여운을 남긴다. 이 곡은 작곡시기상으로 소위 '브람스 만년의 작품'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년의 작품들에 드리운 '질은 우수와 적막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 브람스의 나이 어느덧 50대 초반! 어쩌면 그는 지나온 고독한 삶을 미련과 회한 가득한 시선으로 반추하면서 그 궁극적 귀결점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악장: 첫 악장은 무척 단순한 모티브로 출발한다. 곡이 시작되면 바이올린이 하행 3도 및 상행 6도 음정을 번갈아 꺼내놓으며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모티브는 악장을 구성하는 기본 소재로서 마치 건물을 짓는 벽돌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 부수적인 선율들이 어우러지면서 제1주제를 형성하고, 강한 리듬 위에서 사뭇 비장하게 흐르는 제2주제(호른과 첼로), 한결 부드러운 오보에 선율 등이 대비를 이루면서 고도로 건축적이고 드라마틱한 흐름을 구축해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브람스가 그 단순한 모티브들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 짜놓은 제1주제 안에 붙여 넣은 숨결은 짙막한 음표들 사이사이에 놓인 쉼표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탄식과도 같은 허전함, 왠지 가슴 한 구석이 시린 느낌이야말로 이 곡의 기저에 흐르는 정서를 대변한다 하겠다.

2악장: 발전부가 생략된 소나타 형식을 취한 이 악장에서 브람스는 중세 교회선법(프리기아 선법, Phrygian mode)에 기초한 선율을 사용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악장을 가리켜 '달빛 비치는 언덕 맞은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장례행렬 같다'고 했는데, 분명 이 악장에는 어스름한 빛이 스며있고 종교적인 기운이 흐른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는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한 고독한 인간의 회한과 번민을 목도하게 된다.

3악장: 스케르초에 해당하지만 소나타 형식을 취한 악장으로 가장 늦게 완성되었다. 힘찬 리듬과 화려한 색채로 넘쳐나는 축전적인 곡으로서 음악은 시종 활기차고 강렬하게 타오른다, 마치 젊은 날의 불꽃처럼.

4악장: 바흐의 칸타타 "주여, 당신을 갈망하나이다(Nach dir, Herr, verlangt mir, BWV150)"의 종곡('내 모든 고통의 나날들은 신에 의해 기쁨 속에서 마감될지니')에서 가져온 8마디의 베이스 주제에 기초한 파사칼리아 또는 샤콘느(바로크 변주곡의 일종)이다. 치밀하게 설계되고 긴밀하게 연결된 30개 변주에 의한 흐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부(에스프레시보, 3/2박자)는 차분한 4개(12~15)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엄하고 심오한 악장은 온갖 상념과 사유, 감정의 편란들이 새겨진 변주들의 연결이 드라마틱한 기복을 형성하며 전개되다가 마침내 통렬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Brahms' Symphony No. 4 is the last symphony that he composed for the orchestra and it is known that he was particularly secretive about the composition process of this work, perhaps due to some exploratory features of the piece such as musical elements from medieval church music as well as variations of the Baroque music.

The first performance of this work took place privately in Vienna where Brahms performed an arrangement for two pianos with his friend Ignaz Brüll. After hearing the performance, music critic Eduard Hanslick claimed that, "I had the feeling that I was being given a beating by two incredibly intelligent people," and biographer Max Kalbeck had advised Brahms that the scherzo should be thrown away but the finale should be published in a work of its own. Howev-

er, in October 1885, when the official premiere of the work was performed at Meiningen in Germany, it turned out to be a big success. The duke was particularly satisfied with the first and third movements and it is known that he had asked for those two movements to be played again.

The first movement **Allegro non troppo** begins with a simple motif and as the music progresses, the violins play the primary theme in the key of e minor that is mostly composed of descending 3rds. The second theme is played by the horns and cellos which forms a contrast with the soft melody in the oboes. In the second movement **Andante moderato**, Brahms uses a theme in the 'phrygian mode' which is a musical mode in medieval church music. It is known that Richard Strauss likened this movement to "a funeral procession moving in silence across moonlit heights" which highlights the dark, melancholy and religious mood. Although the third movements in Brahms' previous symphonies are usually relaxed and dance-like pieces, the third movement of his fourth symphony, **Allegro giocoso**, is a scherzo in the sonata form which contains powerful rhythms and colourful melody. In the last movement,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Brahms uses a symphonic passacaglia (similar to chaconne) in which the progression of chords are developed into thirty different variations. The theme is known to be derived from Bach's cantata, *Nach dir, Herr, verlangt mir*, BWV 150.

글: 황장원(음악 칼럼니스트)

ORCHESTRA



드레스덴 필하모닉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쿠르트 마쿠어, 마태 야노프스키, 리하르트 크라우제 부르고스를 이어 2011년부터 미하엘 산더링이 수석 지휘자 역할을 맡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5세기 시의회에서 모금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음악 협의회(Ratamusik)'가 19세기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온 단체이다. 드레스덴이 첫 콘서트홀을 갖기 시작한 1870년 이래로, 오케스트라의 교향악 콘서트를 중심으로 도시의 콘서트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 외에도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오랫동안 오페라 협주곡과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콘서트 오케스트라로 활동해왔다. 오케스트라는 구 시가지의 문화 궁전(Kulturpalast)에 상주하며 2017년에 새로운 공연장으로 신축되기 전까지 주 공연장으로는 알베르티눔과 체를린 국립극장을 사용했다.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낭만 레퍼토리를 통해 독일 전통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바로크와 빈 클래식 음악, 또는 현대 곡들을 통해 유연한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오래 전부터 여러 지휘자들 및 작곡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중에는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부터 에리히 클라이버, 한스 크니피츨부쉬, 앙드레 클레멘, 나탈 마리아, 안드리스 벨른스와 크리스티안 피터버거까지 다양한 음악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초연 무대 또한 오케스트라의 중심 레퍼토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크로이츠체시 드레스덴 스넨합창단과 함께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바흐 연주로 고전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항상 교향곡 레퍼토리를 통해 드레스덴 필하모닉 합창단과 가까운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의 일부는 드레스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소속이며, 체임버 음악과 체임버 교향곡 연주로 오케스트라의 체임버 음악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정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프로그램, 영화 음악 콘서트 등 세롭고도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을 보다 더 다양한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매년 세계적인 무대에 초청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국제적인 명성을 증명해왔으며 1937년부터 음반 레코딩에도 힘써왔는데, 최근에는 미하엘 산더링의 지휘 아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을 커릴링하여 녹음하였으며 2015년 11월 소니 레이블을 통해 (교향곡 6번)이 처음 발매되었다.

The Dresden Philharmonic is the orchestra of Dresden, the State Capital of Saxony. Since 2011, Michael Sanderling has been its Principal Conductor, following Kurt Masur, Marek Janowski, Rafael Frühbeck de Burgos and others in this position. The Dresden Philharmonic continues the tradition of the Ratamusik, the city council's musicians who were first mentioned in the fifteenth century and had grown into an orchestra by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Since 1870, the

year when Dresden got its first great concert hall, the Philharmonic's symphony concerts have been an established part of the city's concert life. The Dresden Philharmonic has ever since been a concert orchestra with regular ventures into the fields of opera concertante and oratorios. It is housed in the Kulturpalast in the middle of the Old Town. The latest shell of the building will be built-in with a new, ultra-modern concert hall by 2017. Until then, the main venues for the Philharmonic's great concerts are the Albertinum and the Schauspielhaus.

The Dresden Philharmonic offers great musical and stylistic variety. On the one hand, the orchestra has been able to retain its very own "German" sound in the Romantic repertoire. On the other hand, it has developed flexibility of sound and style for Baroque and Viennese Classic music, as well as for modern works. Renowned conductors and composers headed the orchestra early on, from Brahms, Tchaikovsky, Dvořák and Richard Strauss to Erich Kleiber and Krappertsbusch, Pevni and Marmier, to Andri Nelson and Kristjan Järvi. Premieres remain an important part of the orchestra's programme today.

The Dresden Philharmonic joins the Dresden Kreuzchor for

the Christmas and Easter Bach performances at the Kreuzkirche. For the great choral symphonies the orchestra can rely on the Dresden Philharmonic Choir as an excellent partner. Another important tradition is chamber music and chamber symphonies performed by the Dresden Philharmonic Chamber Orchestra, all of whose musicians come from the Dresden Philharmonic. Not only does the Dresden Philharmonic enjoy an extraordinarily large number of regular subscribers, with its family programmes, film music concerts etc. it does a great job in introducing classical music to new groups of listeners. Guest performances all over the world are testimony to the high renown the Dresden Philharmonic enjoys in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Another remarkable aspect is the Philharmonic's impressive discography which started to develop in 1937. A new paired cycle of symphonies of Dmitri Shostakovich and Ludwig van Beethoven under the direction of Principal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is currently recorded. Sony Classical has released the debut album of the fascinating combination of the Symphonies No. 6 in November 2015.

ROSTER

DRESDNER PHILHARMONIE

1st Violin

Heike Janicke*
Wolfgang Hentrich*
Dalia Richter
Julia Suslov
Christoph Lindemann
Ute Kelemen
Johannes Groth
Antje Becker
Thomas Otto
Annekatrin Rammelt
Deborah Jungnickel
Xianbo Wen
Christin Uhlmann
Johanna Buckard
Joseph Staddon de Valle
Jan Paul Kusmaul

2nd Violin

Markus Gundermann*
Rodrigo Reichel* **
Adela-Maria Bratu
Denise Nittel
Steffen Gaitzsch
Matthias Bettin
Heiko Seifert
Andreas Hoene
Andrea Dittlich
Constanze Sandmann
Johannes Hupach
Signe Dietze**
Andreas Feidmann**
Thomas Grote**

Viola

Matan Gilitchensky*
Beate Müller
Steffen Seifert
Steffen Neumann
Heiko Mürbe
Andreas Kuhlmann
Harald Hufnagel
Eva Maria Krauer
Katya Gorovaya**
Kasumi Matsuyama**
Thomas Oepen**
Martin Vollmer**

Violoncello

Matthias Bräutigam*
Ulf Prelle*
Victor Meister
Petra Willmann
Thomas Bätz
Rainer Pronwitz
Karl Bernhard von Stumpff
Christens Krieger
Daniel Thiele
Hans-Ludwig Raatz**

Double Bass

Razvan Popescu*
Dominik Greger* **
Tobias Glöckler
Olaf Kindel
Norbert Schuster
Thilo Ermold

Donatus Bergemann
Ilie Cozmatchi

Flute

Mareike Thrun*
Christian Sprenger* **
Jérémie Abergel**
Tina Bäcker**

Oboe

Johannes Pfeiffer
Undine Röhner-Stolle
Guido Titze
Jens Prasse

Clarinet

Fabian Dirr*
Sebastian Lehne* **
Henry Philipp
Dittmar Trebeljahr

Bassoon

Daniel Bätz*
David Spranger* **
Robert-Christian Schuster
Mario Hendel

Horn

Michael Schneider*
Friedrich Kettschau
Torsten Gottschalk
Johannes Max
Dietrich Schlät

Carsten Gießmann

Trumpet

Christian Höcherl*
Csaba Kelemen
Nikolaus von Tippelskirch
Björn Kadenbach

Trombone

Matthias Franz*
Stefan Langbein*
Peter Conrad
Dietmar Pester

Timpani/Percussion

Stefan Kittlaus*
Oliver Mills
Gido Maier

* Principal
** Substitute

Frauke Roth | General Director
Martin Bülow | Artistic Director
Alexandra MacDonald | Personal Assistant to the Principal Conductor
Almut Placke | Orchestra Operations
Gerd Krens, Rico Löwe, Matthias Richter | Orchestra Staff

© Nikolaj Lund

CONDUCTOR

미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 Marco Borggreve

미하엘 잔데를링은 2011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그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잔데를링은 세계 최고 음악 단체들로부터 초청받고 있으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일본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밤베르크 심포니, 빈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도쿄 NHK 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베를린 출신인 미하엘 잔데를링은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출세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1987년, 20세였던 잔데를링은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첼로 솔로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에서 활동하였다. 솔로리스트로 그는 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받았으며, 체임버 음악에도 대단한 열정을 지녀 8년 동안 트리오 엑스 애쿠오 멤버로 활동하였다.

2000년 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허설에서 그는 지휘자 단에 처음 올랐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지휘자인 쿠르트 잔데를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미하엘은 점점 지휘자 직을 맡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2006년 포츠담 캄머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어셔가의 몰락〉과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 오페라 지휘로도 성공적인 무대를 거뒀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서 잔데를링은 드보르자크, 슈만,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등 여러 작품으로 음반 발매를 하였다. 2010년 이후 첼리스트로서의 활동은 접고, 지휘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들과 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프랑크푸르트 공연예술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독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바이마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용게 도이체 필하모닉,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작업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하면 미하엘 잔데를링은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연 중에는 단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낸다고 한다. 그의 음악적 지평은 바흐와 헨델부터 여러 초연 무대까지 폭 넓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사운드와 스타일의 유연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Michael Sanderling has been Principal Conductor at the Dresden Philharmonic since 2011. As his contract was prolonged, this extremely successful example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nductor and the orchestra will continue until at least 2019.

At the same time, he is a sought-after guest conductor in the world's greatest music centres and directs renowned orchestras such as the Zurich Tonhalle Orchestra, the Yomiuri Nippon Symphony Orchestra in Tokyo, the Berlin Konzerthausorchester, the Munich Philharmonic Orchestra, the Bamberg Symphony Orchestra, the Vienna Symphony Orchestra, the Toronto Symphony Orchestra, the NHK Symphony Orchestra in Tokyo, the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and Germany's great radio orchestras.

Born in Berlin, Michael Sanderling is one of the few who made their way from being orchestra musicians into the top league of conductors. In 1987, aged 20, he became a cello soloist at the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under Kurt Masur, then from 1994 to 2006 he filled the same position at the Berlin Radio Symphony Orchestra. As a soloist, he gave guest performances with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 Orchestre de Paris, to name but a few, and as a passionate chamber musician he was a member of the Ex Aequo trio for eight years.

It was at a rehearsal of the Berlin Chamber Orchestra in 2000 that he stood at the conductor's desk for the first time – and was on fire. Familiar with a conductor's work from his childhood as the son of legendary Kurt Sanderling, Michael assumed more and more conducting jobs and was appointed principal conductor and art director of the renowned Kammerakademie Potsdam in 2006. He was successful as an opera conductor with Philip Glass'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in Potsdam and with a new production of Sergei Prokofiev's "War and Peace" at Cologne Opera. As a cellist and conductor he has made CD recordings of important works from the repertoire of Dvořák, Schumann, Shostakovich, Prokofiev, Tchaikovsky and others.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he last performed as a cellist.

What is close to Michael Sanderling's heart is work with young musicians. He teaches as a professor at Frankfurt University for Music and Performing Arts and co-operates regularly with the Bundesjugendorchester, the Jerusalem Weimar Youth Orchestra, the Junge Deutsche Philharmonie and with the Schleswig-Holstein Festival Orchestra. From 2003 to 2013 he was associated with the Deutsche Streicherphilharmonie as its principal conductor.

Speaking the language of the orchestra musicians, Michael Sanderling is considered to be efficient at rehearsals and yet able to bring out the fire in the musicians during concerts. His musical horizon encompasses Bach and Handel as well as premieres, of which he has conducted many by now, and it is a major concern for him to develop the Dresden Philharmonic's flexibility of sound and style even further.

적인
20세
트하
부터
스트
려 오
을 지

단에
이자
던 미
06년
었다.
세르
락 지
데를
스키
로서

여기
며 독
스트
케스
필하

을적
이플
연 무
의사
관심

PIANIST

김선욱

SUNWOOK KIM



© Marco Borggreve

런던을 근거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18살이었던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경연 결승에서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 연주했던 브람스 협주곡 1번으로 비평계의 극찬을 받았다.

동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런던 심포니(존 엘리엇 가디너, 다니엘 하딩),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정명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마렉 야노프스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사카리 오라모, 앤드류 맨지, 투간 소키예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라이 발추하, 에드워드 가드너), 런던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정명훈), NHK 심포니(칼-하인즈 스테픈), 할레 오케스트라(마크 엘더)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 협연으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2016/17시즌 김선욱은 루가노 RTSI 오케스트라, 쾰른 필하모닉, 툴루즈 캐피톨 국립교향악단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014/15시즌 상주 음악가로 활동했던 본머스 심포니와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을 연주하였다. 리즈 콩쿠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는 지난 시즌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으로 투어를 함께했으며, 브람스 협주곡 1&2번 레코딩을 진행했다. 이 앨범은 2017년 할레 오케스트라 레이블로 발매됐다.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욱은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필하모니, 위그모어 홀, 테아트르 콜론을 포함한 주요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으며, 파리 살 플레엘에서 개최되는 'Piano 4 Etoiles'에도 정기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독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런던 인터내셔널 피아노 시리즈 같은 페스티벌 역시 김선욱의 주요 활동 무대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LG아트센터를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완수했고, 2014년 가을 바흐-프랑크-슈만으로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가졌다.

2015년 가을 악첸투스(Accentus) 레이블로 베토벤 후기 소나타 '발트슈타인'과 '함머클라비어'를 담은 첫 독주앨범을 출판한 김선욱은 2016년 브람스 소나타 3번 등이 수록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2017년 베토벤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을 담은 세 번째 독주곡집을 선보였다. 앞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2종의 협주곡 앨범 역시 호평 받았는데, 그 중 진은숙 피아노 협주곡집은 BBC뮤직매거진상과 국제클래식음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0살에 독주, 12살에 협연 데뷔 무대를 가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리즈 콩쿠르에 우승하기 앞서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4),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5)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된 김선욱은 베토벤 하우스 소장 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London-based Sunwook Kim came to international recognition when he won the prestigious Leed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06, aged just 18, becoming the competition's youngest winner for 40 years, as well as its first Asian winner. His performance of Brahms's Concerto No.1 with the Hallé Orchestra and Sir Mark Elder in the competition's finals attracted unanimous praise from the press. Since then, he has established a reputation as one of the fin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appearing as a concerto soloist in the subscription series of some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including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Gardiner, Harding), Concertgebouw Orchestra (Chung), Berlin Radio Symphony (Janowski), NDR Sinfonieorchester Hamburg, Finnish Radio Symphony (Oramo, Manze, Sokhiev), Philharmonia Orchestra (Ashkenazy, Valcuha, Gardner), London Philharmonic (Sinai), Radio-France Philharmonic (Chung), NHK Symphony (Steffens), Hallé Orchestra (Elder), and the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for his BBC Proms debut in Summer 2014.

This season Sunwook will make his debut with the RTSI Orchestra in Lugano (Beethoven 3 with Vladimir Ashkenazy), the Guzerich Orchestra in Cologne (Britten with Michael Sanderling) and the Orchestre National du Capitole de Toulouse for a performance of Beethoven's Triple Concerto.

In 14/15 he completed a highly acclaimed residency with the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and returns there this season for a performance of Tchaikovsky's 1st Concerto. Since their Leeds finals together in 2006, Sunwook Kim has also enjoyed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Hallé Orchestra and Sir Mark Elder. At the start of last season they gave a 6-concert tour together with Rachmaninov's Concerto No.3 and recorded Brahms's Piano Concertos No.1 & 2 on the Hallé's own label. Other recital concerto highlights include a performance of Unsuk Chin's Piano Concerto with the Radio-France Philharmonic at the prestigious Festival d'Automne in Paris, and debut projects with the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Schumann with Paavo Järvi), Hamburger Symphoniker (Rachmaninov 3), Opera di Roma (Beethoven 4) and Hong Kong Sinfonietta (Brahms 1).

Recitals highlights to date include regular appearances in the "Piano 4 Etoiles" series at Salle Pleyel in Paris, as well as debuts at the Wigmore Hall, the London International Piano Series (Queen Elizabeth Hall), Stockholm Konserthuset, Teatro Colon Buenos Aires, La Roque d'Antheron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in France, Kioi Hall in Tokyo, Symphony Hall Osaka, Brussels Klara Festival, Beethoven-Haus Bonn, Klavier-Festival Ruhr and Mecklenburg-Vorpommern Festspiele. In 12/13, he presented a complete cycle of the Beethoven Sonatas at the LG Arts Centre in Seoul. Future recital plans include returns to the "Piano 4 Etoiles" series at the Philharmonie in Paris and Wigmore Hall in London.

Sunwook Kim's debut recital disc was released on the Accentus label in October 2015, featuring Beethoven's Waldstein and Hammerklavier sonatas and was followed in January 2016 by a second Accentus recital release with Cesar Franck's Prelude, choral et fugue and Brahms's Sonata No.3. His discography to date includes two concerto recordings, both on Deutsche Grammophon and with the Seoul Philharmonic conducted by Myung-Whun Chung: a CD featuring Unsuk Chin's Piano Concerto (2014) which attracted outstanding reviews and awards from BBC Music Magazine and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 and a CD featuring Beethoven's Concerto No.5 (2013).

Born in Seoul in 1988, Sunwook Kim began the piano at the age of 3. He gave his debut recital aged just 10, and this was followed by his concerto debut two years later. He gradu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February 2008, and then completed an MA in conducting at the Royal Academy of Music. Besides Leeds, international awards include the first prize at the 2004 Ettlingen Competition (Germany) and the 2005 Clara Haskil Competition (Switzerland). In 2013, Sunwook was selected by the Beethoven-Haus Bonn to become the first beneficiary of its new Mentoring Programme, a status which grants him exclusive access to the house's unique collections and resources.

www.sunwookkim.com

“브람스는 하나의 음표도 낭비하지 않고 완전한 음악을 설계한 완벽주의자”

- 김선욱

최근 김선욱이 악첸투스 레이블에서 녹음한 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집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악관의 고전주의자가 등장한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빌헬름 켐프와 같은 견고한 구조의 설계, 미켈란젤리를 연상시키는 톤의 정숙함, 그리고 기저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진득한 에너지는 분명 새로운 고전주의자로 범주화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의 탄생이었다. 김선욱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진중함, 엄숙함, 신중함과 같은 수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무게감 있는 언변과 음악적 행보가 이러한 신뢰감 넘치는 레토릭을 양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선욱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 바흐와 베토벤과 브람스로 이어지는 3B 작곡가에 특히 천착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다분히 개인적인, 고전적인 그의 취향에 의한 것이다.

이 취향의 시발점으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은 김선욱이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던 2006년 리즈 콩쿠르 결선에서 선택한 레퍼토리 부터였다. 피아니스트들에게 최고의 난곡으로 꼽히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택한 것이었다. 당시 텔레그레프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의 연주를 평가했다.

“스스로 선택한 곡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보여준 것은 그가 유일했다. 마크 엘더와 할레 오케스트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호흡을 맞춘 연주자도, 와일드하면서도 지적인 연주를 보여준 이도, 길을 가로질러 가서라도 듣고 싶은 이도 그가 유일했다. 시적이면서도 지적인 짜릿함이 섞인 느린 악장은 앞으로 그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의 승리는, 굳이 따질 필요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2번
피아노 | 김선욱
지휘 | 마크 엘더
오케스트라 | 할레 오케스트라
HALLE CD HLD 7546

© Marco Borggreve

이날 이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은 김선욱에게 일종의 시그니처 레퍼토리가 됐다. 수많은 거장들이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도전하는 작품을 이미 10대에 완성형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그의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장대한 스케일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난곡인 이유로 청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작품인 듯 보이지만 사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브람스가 25세에 비로소 선보인 청년기의 풋풋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연주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대립'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김선욱의 시선은 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립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버무려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폭발시키는 다채로운 다이내믹의 활용도 유효하다.

지속을 흐드는 1악장의 두터운 오케스트라의 파동이 가라앉으면 첫 타건이 시작되고 침착하고 밀도 있는 김선욱표 음색이 들려온다. 1악장에서는 특유의 교향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지만 건반 하나 하나를 신중히 누르며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낸다. 절정부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이완한 듯 유려하게 그려지며 제1주제의 독주부의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정서, 아르페지오 섹션에서 각 음표별로 느껴지는 입체적인 강약 조절 등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두터운 지층으로 쌓여있는 이 작품에서도 그가 얼마나 다면적인 톤의 표현에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아노로 그린 베네딕투스라고 불리는 2악장은 이번 앨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고 싶다. 1악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선욱은 '대립'보다는 '대화', 감정의 내적 폭발보다는 노래하는데 그 방점을 찍은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2악장은 김선욱이 브람스를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음악관이 모두 녹아있는 독백에 다름이 아니다. 마크 엘더와 할레 오케스트라 역시 이 독백을 위해 정적이고 아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와 독주자의 호흡이 매우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대립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3악장에서는 김선욱도 감정의 연소를 마다하지 않는다. 널을 뛰는 도약, 오케스트라의 공격적인 어택이 날을 세우고 위협하지만 넉넉한 스케일로 펼쳐놓은 공간 속에서 투쟁하고 화해한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왔던 모험이 비로소 론도 악장에서 만나 이상적으로 완결된다.

1번 작곡 이후 무려 23년이라는 간극을 지니고 있는 협주곡 2번은 1번의 장대한 스케일, 투쟁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여유와 관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1악장을 지배하는 서정적인 심상은 김선욱이 지닌 종적으로 침잠하는 듯한 피아니즘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러한 성공적인 분위기로 인해 김선욱의 매력이 오히려 1번보다는 2번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힘주지 않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는 피아니즘이 선연한 관현악의 색채 속에 잘 녹아 들어가고 있다.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를 주도해나가는 2악장의 경우 김선욱이 확보한 공간 속에서 여유 있는 흐름이 느껴진다. 슬로우 비디오투를 보듯 독주부가 부각되는 각 구간은 각 음표들이 나지막히 떠오르는데 김선욱 특유의 몰입도가 음악적 장면으로 구현되는 것 같다.

첼로 협주곡 혹은 서정적인 아리아 같은 3악장은 확장된 실내악단 같이 투명한 할레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심분 발휘해주는 대목이다. 이 부분만큼은 김선욱의 피아노도 한결음 물러서 실내악적으로 빛어내는 아기가기한 앙상블과 유려하게 어우러진다. 물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관조하고 있지만 다이내믹을 적절히 구사하며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1번의 2악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김선욱은 완서악장의 각별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지니고 있다.

4악장은 음향적으로는 평이하나 6개의 주요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김선욱은 경쾌하고 자질한 수많은 트릴(trill, 떼꾸밈음)에서도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며 경과부를 지나 점차 외연이 확장되는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서서히 내부의 에너지를 폭발시켜나간다.

1번과 2번 모두 김선욱의 밀도 있고 진중한 고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명연이며 특히 완서악장의 나지막한 아름다움은 어떤 연주자보다도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선욱의 뛰어난 연주와 함께 이번 음반에서는 특히 마크 엘더와 할레 오케스트라의 역할도 돋보인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들이 교향적 특성을 진하게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운용을 과시적이거나 장황하게 펼쳐놓지 않으며 각 독주구간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세심하고 간결하게 각 구간을 섬세하게 분할하여 지휘하고 있다. 매우 세심하고 훌륭한 파트너이다.

글: 노태현(음악 칼럼니스트)

옛 독일 사운드, 유연한 21세기 지휘봉



© Marco Borgeggs

지난 봄 잠시 들렀던 드레스덴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열대 강변의 피렌체'란 별명답게 수려한 곳이었다. 나는 건물들의 시각적 미미치가 곧바로 청각적 미미치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곳기에는 끊임없이 환청으로 음악이 들려왔다. 화려하면서 고음스러운 바로크 양식의 크빙어 궁정과 쾨머마를 가늠해 미켈란젤로, 쾨텐카 등 이곳에 머물렀던 음악가들의 걸작들을 떠올렸다. 궁정악장 하이나켄의 '드레스덴 협주곡'이 그대로 눈 앞에 현현하는 상상을 했다.

오케스트라 편성에게 드레스덴은 낯익은 지명이다. 드레스덴 슈타츠포카펠레와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유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9세기에 창설됐다. 그 역원은 더욱 오래됐다. 15세기 시의회에서 모집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음악 현악회(Ratsmusik)'가 시초다.

1870년 11월 드레스덴에 최초의 콘서트를 저베르베하우스같이 개관한다. 음악 예술의 향유자가 기존의 귀족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올 겨울과 함께 이곳에서 연주를 시작한 게베르베하우스관현악단(Gewerbehausorchester)은 이후 드레스덴 필하모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교향악 콘서트를 중심으로 음악의 도시 전통을 이어가는데 일조했다. 오페라, 협주곡, 오라토리오 분야에서도 역시 활발히 연주한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작곡의 거장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했다.

헤르만 안스펠트(1871-1885), 미하엘 쾨머만(1885-1886), 예른스트 슈탈(1886-1890), 아우구스트 프렐러(1890-1903), 빌리 울젠(1903-1915), 예르빈 린트너(1915-1923), 요제프 구스타프 브라체크(1923-1924), 에두아르트 외리케(1924-1929), 볼 사인틀루크(1929-1932), 베르너 라트비히(1932-1934), 파울 만 쾨펜(1934-1942), 카를 슈리히트(1942-1944), 게르하르트 비전휘터(1945-1946), 하인츠 봉가르츠(1947-1964), 홀스트 포스터(1964-1967), 쿠르트 마

주어(1967-1972), Gunter Heibich(1972-1977), 헤르베르트 케겔(1977-1985), 외르크 페터 바이글(1986-1994), 마셀 플라송(1994-1999), 마레 야노프스키(2000-2004), 리파엘 프루헨 데 부르그스(2004-2011) 등 드레스덴 필의 포디움은 정경한 지휘자들의 숲이다. 이를 위로 하고 2011년부터 음악감독을 맡은 이는 미하엘 잔데를링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단원들은 잔데를링의 효율적인 리허설과 승격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지휘 스타일을 높이 평가한다. 바로, 현월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의 레퍼토리를 지휘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는 전통 있는 드레스덴 필의 사운드를 이어가면서 더욱 유연한 자세로 21세기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자다. 잔데를링의 계약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될 사실에서 악단과 지휘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첫 내한은 200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심자가 소년합창단과 함께 예술의전당에서 앙실간 페터 슈라이어 지휘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로타리히 크라이슬레 지휘로 바흐 '마태 수난곡'을 연주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첫 단독 내한공연은 2008년 6월이었다. 리파엘 프루헨 데 부르그스가 지휘봉을 잡은 공연에서 먼저 미사 마이스키가 드보르자크 '젤로 협주곡'을 합연했다. 마이스키 특유의 화려하고 짙은 표현이 필적하고 진중함 관현악 위로 넘실거렸다.

냉전시대 구 동독 지역과 동구권 오케스트라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서방세계와 단절된 대신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했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시 75세의 거장 프뤼베키 지휘한 브람스 교향곡 4번도 그랬다. 옛 독일풍을 살려낸 명연으로 칭송받았다. 이날 앙코르 중 히메네스의 <루이 알론소의 결혼> 간주곡에서 프뤼베키는 강렬한 색채를 펼쳤다. 이후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프뤼베키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 K.Y.B.



© K.Y.B.

2013년 10월 30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미하엘 잔데를링과 내한했다. 베그너 <로엔그린> 3막 전주곡에서 안정감 있는 독일 사운드로 포문을 열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에서는 끈기 연마한 듯한 현악군의 일치된 사운드를 기반으로 기존의 해석보다 훨씬 건음악이 크고 여유 있는, 개성 만점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서둘러 잡고 경건적으로 나아가며 4악장에서 폭발시키는 드레스덴 필의 연주에서 미하엘 잔데를링의 영민한 전략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들은 메인 레퍼토리와 어울리는 앙코르 곡이었던 차이콥스키 <에프게니 오네긴> 중 볼로네이즈로 마무리하며 짙은 전상을 남겼다.

이날은 협연자 율리아 피셔의 첫 내한공연이기도 했다. 제1안첸, 할러리 환과 더불어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의 트로이카로 꼽히는 연주자다. 피셔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손에 권 것처럼 완벽하게 해석해 냈다. 브람스 협주곡을 그 동안 술하게 들었지만 그토록 단단하면서도 능란한 연주는 실제 연주로는 처음 접했다. 많은 이들에게 감탄으로 기억될 공연이었다.

2015년 6월 공연에도 잔데를링이 동행했다. 브람스 교향곡 1번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이 각각 메인 레퍼토리가 됐다. 역시 독일 레퍼토리는 중추하면서도 단단한 독일 악단 특유의 해석이 안정감이라는 믿음줄 준 공연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다크 초콜릿 같은 빛깔의 현악군이 안정감 있는 사운드의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격제 적소에서 텅텅의 완급을 조절하는 잔데를링의 지휘는 음악을 고여 있게 하고 흐르게 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했다.

앙실간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4번을 연주했다. 서정성을 가득 품은 명상적인 연주였다. 세채와 힘을 머금은 프랑스 피아니즘이 발현했다. 담담하게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나누는 거장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앙코르로 들려준 기브리엘 포레의 '무언가'는 축축한 감수성 위에 또 한 방울의 동경을 떨어뜨려 듣는 의외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두 차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협연자들은 모두 잊혀지지 않는 감동한 추억으로 남았다. 이번엔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역시 기대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의 특징으로 치러질은 '탁월한 협연의 전통'을 계승할 책임자다.

글: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평론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단원이 현지에서 본 잔데를링 & 오케스트라

수요일 아침, 정확하게 오전 10시, 오보에의 튜닝으로 단원들이 모두 조율을 하는 동안 검은 머리의 키 큰 남자가 두꺼운 악보를 거드런이여 하고 걸어 들어온다.

많은 시간 동안 악보를 봐서 그렇지 그의 등과 어깨는 약간 안으로 굽어져 동반성연을 일으킨다. 짧은 인사와 함께 새로운 곡을 맞이하는 그의 다짐을 우리에게 어필하며 날세게 지휘봉을 들어 호흡을 멈추게 한 뒤 함께 첫 호흡을 내쉬며 연습이 시작된다. 그는 집중한 눈빛과 에너지 넘치는 몸동작으로 단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단원들도 하나 둘씩 그의 세심한 요구에 반응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은 멈추고 그가 자세한 요구사항을 친절히 붙여놓는다. 소리의 밸런스, 테크닉, 리듬의 전달 방식 등 그가 저편하고 싶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된다. 때로는 엄중한 신사의 어투로, 때로는 친구가 조언하듯이, 때로는 부부가 실랑이를 벌이듯이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는 90 여명의 음악가를 지휘하여 하는 지휘자의 카리스마를 나타내며 베를린(Berliner) 특유의 비판적 코멘트로 순식간에 호트러전 분위기를 잡고 자신의 음악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날선 지휘봉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긴장시킨다.

그는 미하엘 잔데를링,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존재가 있어서 잔데를링 교수님 또는 지휘자(Sie)로 보통 부르지만 많은 단원들이 지휘자 이전에 첼리스트였던 그를 알고 지낸 터라 미하엘(Du)이라고 반하게 티서 이름을 부른다. 쉬는 시간에는 단원들과 편하게 소소한 일상과 음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안부도 물어가며 리허설의 긴장을 풀고 지휘자라는 타이틀이 아닌 동료이자 친구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절로 신음으로 머뭇 나이에 라이코치히 게만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절로 수석을 역임하며 수많은 지휘자 및

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유명한 지휘자였던 아버지 루트비히 잔데를링을 보면서 지휘자와 심리나 역할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것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가 되기 이전엔 그는 작은 규모의 앙상블인 모조달 캄머악테미의 수석 지휘자로 있었다. 약 6년간 2010년에 그가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거론되었을 때 대다수의 단원들이 신선한 바람을 들고 올 그에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나 또한 그가 초청되어 우리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던 첫 연주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독일 전통적인 서문드와 노란한 연주 스타일로 이미 길들여져 있는 드레스덴 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젊은 지휘자로서 쉽지 않았을 터지만 구체적이고 섬세한 스타일의 지도력과 자신의 생각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 강한 음악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단원들을 다그치는 모습은 마치 담근과 채찍으로 말을 조련하는 가수와 같았다. 연주할 프로그램은 하이든과 쇼스타코비치였는데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은 당시 드레스덴 딸에서 연주된 적이 드물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등장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그와 같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수석 지휘자 커리어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국제 무대로 댕고 올라서는데 성공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가 수석 지휘자로 오기 이전에도 우리 오케스트라는 풍부한 사운드와 따뜻한 음색으로 유럽 전통, 프랑스 사운드로 대표되며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엔 잔데를링은 그 이상의 것을 이뤄내기 위해 리허설에서부터 단원들의 집중력과 완성도 높은 테크닉을 기반으로 연주해주시길 부탁하며 건강권을 놓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리허설을 진행시킨다.

한번은 뉴욕 리허설에서 기존에 계획된 시간 안엔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몇 개월 후에 추가로 뉴욕 리허설을 해야만 했다. 이런 일은 단원들이 불행하기 딱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리허설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이제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독일 전통을 재창하는 것을 이상으로 짧은 테니지와 새로운 곡의 해석, 다양한 음색의 향연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그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드레스덴은 지금 독일에서 전통과 다문화, 보수와 진보가 활발히 상충하고 있는 이례적인 도시이기도 이곳에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담아내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소재가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 4월 29일, 새로 리모델링한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상주 공연장 클투어팔라스트(문화 공간, Kulturpalast)는 지금 드레스덴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독일에서 최근 새로 연 공연장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베를린의 피에르 볼리츠를과 함부르크의 엘브펠레오니, 그리고 드레스덴의 클투어팔라스트가 단연 건축적, 음향적으로 국제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클투어팔라스트의 외관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어 그대로 보존한 채, 내관은 공연하기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콘서트홀과 시립 도서관, 연극이 불리지는 카베레트 공연장까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약 5년간의 공사 기간과 1억 유로의 투자로 재탄생 했다.

드레스덴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사대적인 소명인 전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을 시의 모토로 내세우며 이 출몰 순수한 음악 공연장과 문화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는 시민과의 소통의 장소로 찾는 데 용기 있게 투자를 했고, 끊임없는 반대 의견과 무뎠으며 도약하였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투표 참여로 결정을 이끌어 낸 후 공사를 시작했으며 막대한 시기와 예상 비용의 큰 차여 없어 관청 태도 이례적인 모범적 케이스라 평가를 받는다. 이제 5년간의

노마덴(Nomadern, 유목민) 생활을 마치고 기쁨의 환환을 한 우리는 마치 새장에 들어가는 철학과 익숙한 곳에서의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나는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들은 조언 중에 "오케스트라는 마치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라"란 말이 기억에 남는다. 한번 입단하면 반명상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새롭게 단장한 클투어팔라스트를 만남으로 인해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뤘다는 흥분을 가진 오케스트라는 마치 좋은 부모님을 만난 아이와 비슷하다고 말이다. 자녀를 향해 넓은 마음으로 자유를 주지만 어느 정도와 비탕이 되는 기본과 지내가 떨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 내주기 위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는 좋은 부모의 역할이 연주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필과 잔데를링의 저부심과 열정이 이제 새 울음 만남으로서 큰 도약의 길을 걷는데 경회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드레스덴 딸이 오프닝 콘서트 때 마치막으로 연주된 베토벤 합창 교향곡 중 4악장에서 나오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찬회의 송가의 가사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그대의 고요한 날개가 머무르는 곳여"를 명원하는 마음으로 찬사를 더해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러와 베토벤이 꿈꾸는 세상과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꼈고 음악 안에서 그 세계는 내 심장 속 깊이 더 파고들어 들어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미하엘 잔데를링, 드레스덴 필하모닉 그리고 드레스덴 시민 모두가 이뤄낸 성과에 대한 저부심과 기쁨을 세상을 향해 겸허한 자세로 각자의 역할로 헌신하는 일만 남았다. 새로운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글: 이은영(드레스덴 필하모닉 제 1바이올린 주자)
*한때 피아니스트 겸으로 미하엘 사사아 후아에는 참예하지 않습니다.

드 레 스 덴 은

“독일의 피렌체” 또는 “엘베 강의 피렌체”로 불린다.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경수를 안고 있다면, 바로크 건축의 경수는 드레스덴에서 비로소 제정할 수 있다. 장려한 규모와 광범한 장식미를 자랑하는 크롬어 궁전이나 프라우엔 교회에 선 여형자들은 모두 궁금골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에, 독일 지도에서도 변방에 자리한 이 도시가 이 같은 화려함을 자랑하게 되었을까?”

오랜 독일 역사 속에서 드레스덴은 줄곧 작센 지역의 수도였다. 오늘날의 지도에서는 작센 주가 독일 동남부에 위치하지만,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독일이 동부의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독일의 중심, 혹은 그 중심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했던 곳이다.

17세기 30년 전쟁의 여파로 신성로마제국의 지배권이 흔들리면서 독일은 길쭉한 ‘계곡’인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는 300여개의 도시와 지역들이 경쟁하는 조각난 나라가 된 것이다. 작센 선제후국 또는 공국(公國)은 이 가운데 오스트리아,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바이에른에 이어 네 번째 정도로 규모였지만 유럽의 대국들에 비할 바 큰 나라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길쭉한 땅이, 엘베 강의 수운, 유럽 북부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 때문에 중세시대부터 일찍이 교역로와 상공업이 발달했고 풍부한 생산력을 자랑한 곳이 작센이었다. 그 수도인 드레스덴도 제국 내의 보칙과 같은 존재로 그 아름다움을 사랑해 밀렸다.

이 도시가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아우구스트 2세(재위 1694~1733)의 통치 시절이었다. 폴란드 왕위 선출에 관여한 공과 당대대 함께 폴란드 왕을 겸했던 그는 폴란드에서는 ‘강건왕’으로 불렸지만 고국인 작센에서는 ‘화려함의 왕’이었다. 청년시절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해 그 화려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작센의 지배자가 된 뒤 기존의 레지던스 궁전에 화려한 바로크적 요소를 덧입히는 한편 1710년부터 18년에 걸쳐 바로크 건축 양식의 절정(絶頂)된 표현으로 불리는 **크롬어 궁전(Zwinger)**을 세웠다.

독일의 대표 만드마크 중 하나인 크롬어 궁전 앞에 서면 우측 손은 크로넨토어(Kronentor, 왕관의 문)에 이름 그대로 커다란 왕

관 모양의 황금 경쇠가 눈을 빼앗는다. 그 뒤로 좌우대칭의 궁전이 들어서 있고, ‘요정의 분수’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북쪽 초입은 미술관으로 뒤러, 뮌헨, 루벤스 등 각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남쪽 외곽은 도자기 합성이다. 이 밖에도 역사 박물관과 동물 박물관 등 수많은 박물관이 궁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음악 팬들에게 드레스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지를 들러면 바로 이 도시의 대표 공연장인 **셈페르오퍼(Semperoper)**다. 1843년 건축된 이 웅장 오페라 극장은 크롬어 궁전 건축의 주역이었던 건축가 고트프리트 쾰퍼의 손으로 세워졌고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세 번에 걸쳐 안도되지 될 것이다. 처음은 외관과 화려함으로 인해, 두 번째는 그 놀라움을 능가하는 인터리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세 번째는 자연 음향의 성세함에 마치 최고급 피싱콘서트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건 음역의 완벽한 밸런스로 학서러움을 선사하는 완벽한 음향 효과로 인해서다.

1849년, 도시 성공인종의 정치 참여와 독일 통일을 요구하는 시민 혁명이 불어 닥쳤을 때 36세의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 극장의 감독이었다. 그는 격문을 손에 들고 대중을 선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설에는 쾰퍼오퍼의 단간에 올라가 깃발을 마구 휘저었다고 한다. 이 일로 그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졌고 바그너는 건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된다. 같은 시기 클라라 슈만이라는 불세출의 피아니스트와 그의 남편인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도 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보살피며 할 가족이 없었던 슈만은 작곡적으로 혁명에 가담할 수 없었지만, 침묵과 ‘자유’의 노래 등으로 정치적 선전화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도시로 상징되는 마공여가의 이름이 바그너와 슈만 뿐은 아니다. 쾰퍼오퍼가 건축되기 전인 아우구스트 2세 시절에는 칼 마리아 폰 베히가 궁정 오페라의 감독으로 재직했다. 20세기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수많은 신작 오페라들이 쾰퍼오퍼에서 초연되었다. 빈과 프라하에서 이 공연을 보러는 수많은 오페라 팬들이 특별 완성된 기차 ‘슈트라우스호’에 실려 화려함을 자랑하던 드레스덴 역에 내렸다. 독일의 문화 수도 중 하나를 자랑하던 드레스덴의 빛나던 시절이었다.

명왕의 시대는 공포와 종격, 인류사에 회자되는 끔찍한 비극과 합력 당수 깊숙이 묻히고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2월,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가 사흘 동안 드레스덴에 집중 폭격을 실시했다. 도심의 40평방 킬로미터가 납작한 것더미가 되었고, 최소 2만 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름다운 **프라우엔 교회(Frauenkirche)**는 성경 속의 ‘둘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어지지 않을 경도’로 무너졌다.

전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시의 길고 지리한 복구가 이어졌다. 크롬어 궁전은 1963년 복원이 완료되었지만 쾰퍼오퍼는 1975년 오스트리아 면에서 ‘기적적으로’ 원본 설계도가 발견됨으로써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구동독(DDR)에 속했던 ‘독일의 피렌체’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영원히 그럴 것처럼 보였다.

드레스덴이 눈물을 닦고 과거의 아름다운 얼굴을 회복할 기회는 1989년 독일 통일과 함께 찾아왔다. 구시가지에서는 공산정권 시대의 각진 건물들이 하나씩 옮겨지기 시작했다. 프라우엔 교회는 광부의 지원과 여러 시민 단체들의 협력으로 2005년 예전 모습 그대로 복구되었다. 무너진 돌들에 번호를 붙여 60년 동안 보관했던 시민들의 자극한 마음 덕분에였다.

광택이 무너지고 다시 세겨진 입에 선 드레스덴의 매력에는 당연히 과거 바그너, 슈만, 베히로 대변되었던 음악문화의 화려함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반(半)천년 역사를 자랑하며 쾰퍼오퍼에 터를 잡고 있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독일제국 성립 한해 건인 1870년 탄생한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그 두 축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길’인 **문화 궁전(Kulturpalast)**은 그 이름에서 연상되듯 1969년 구동독 정권하에서 개관했으며 ‘무척추한’ 인상과 ‘나후한’ 시절로 인해 수많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올해 2017년 4월, 이 궁전은 3년 반의 공사 끝에 변신한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더욱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축제 극장은 음악만을 위한 콘서트홀로 명목하면서 풍성한 음향을 자랑하게 되었고, 스튜디오 작업과 세미나를 위한 수많은 공간이 확보되었다. ‘필하모닉’을 또 하나의 상징으로 한 도시의 화려한 민체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드레스덴을 소개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이센 도자기이다. 드레스덴인들은 아우구스트 2세 재위 시절인 1710년

에 궁정 자기공방을 설립해서 그때까지 동양의 신비한 마술 경도로 생각했던 자기의 투명한 벽화를 유럽에 처음으로 제련했다. 오늘날 드레스덴 교외의 마이센은 유럽 자기의 고향이자 그 상징으로 명성을 안고 있다.

연합군의 폭격 속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아 ‘드레스덴의 기적’으로 불렸던 벽화 ‘군주의 항렬’도 바로 마이센 타일을 무작한 자기 그림이다. 그러나 드레스덴을 ‘도자기 도시’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이센 타일의 매력과 벽화 때문만이 아니다. 궁전과 교회마다 싹 싹 음력을 간직한 가운데 황금 운과 선을 더한 듯한 아늑한 바로크의 벽화를 비치는 것이 우리가 영혼 도자기에서 받는 매력과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자기처럼 빛났던 곳, 그곳이 바로 바로크 시기의 드레스덴이었던 것이다.

그 드레스덴의 운명적 공황이 오랜 여름 끝에 이제 비로소 다시 빛나고 있다. 엘비 오케스트라의 축제 속에서 유서 깊은 독일 오케스트라들의 역할이 더욱 빛나는 오늘, 이 도시의 새로운 빛은 그것이 자랑하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와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새롭고 긴 심지를 정착하고 있다. 소망하건대 금이금이 푸르게 흐르는 엘베 강과 함께 그 빛이 영원하기를.

글: 유은종(음악 집현티스트)

VINCERO

베토벤 그리고 백건우


어
끌어오는
여기저기

피아노 소나타 전곡

2017.9.1 [Fri] - 9.8 [Fri]

평일 20시, 토요일 17시, 일요일 14시·1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후원  문의 02.599.5743

티켓 R 10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Ticket

R 10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Package

전 공연 구매시 **50%할인** (좌석 등급 별 각 100매 한정)

R석 **SOLD OUT**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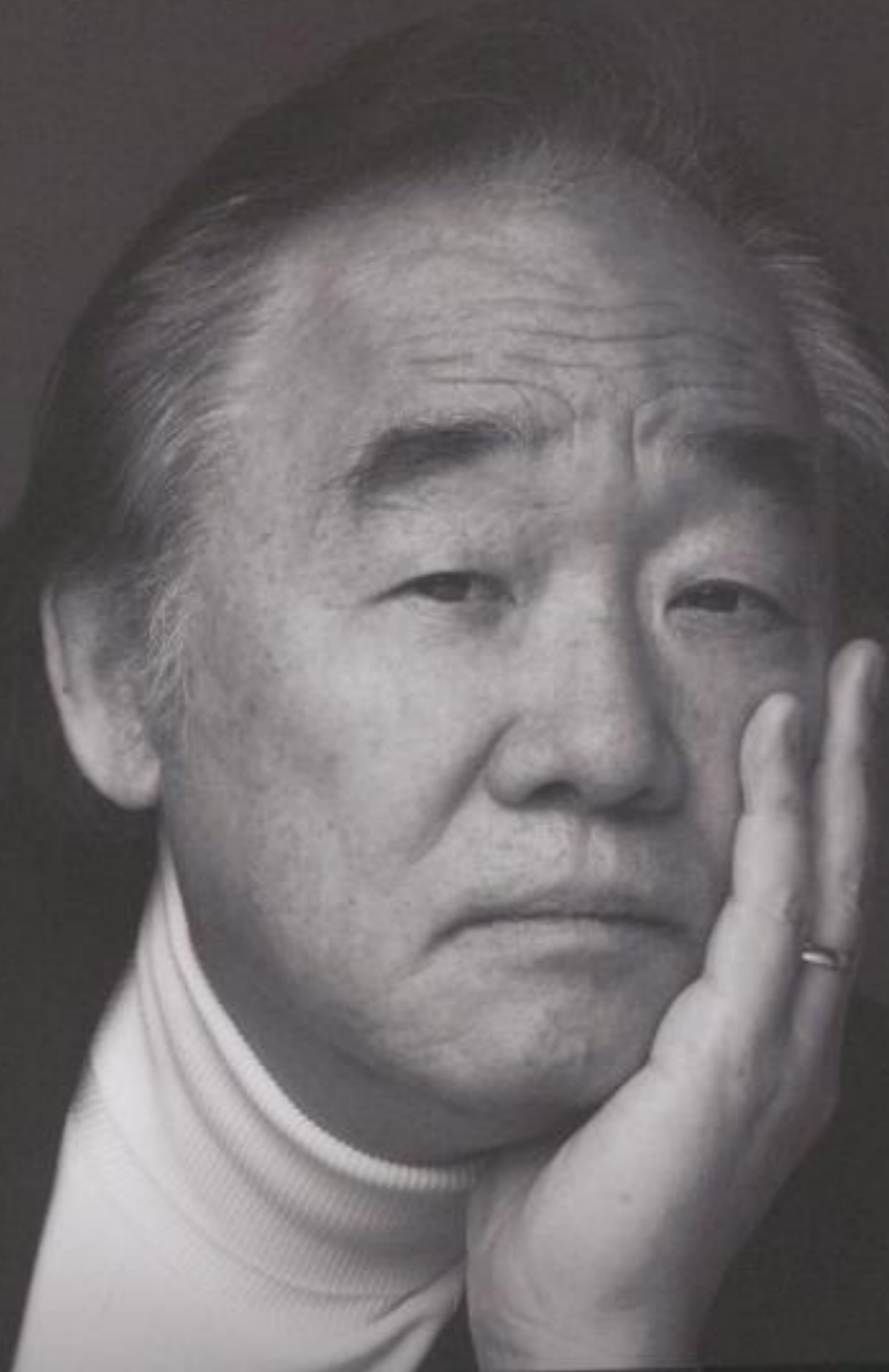
S석 8회 56만원 → 28만원

A석 8회 40만원 → 20만원

B석 8회 24만원 → 12만원

*1인 2매까지 가능

*좌석 별 100set 한정판매(수량 소진시, 패키지 마감)



Program

- 9/1(금) 8시 소나타 20번, 1번, 19번, 15번, 8번(비창)
- 9/2(토) 5시 소나타 5번, 3번, 12번, 14번(월광)
- 9/3(일) 2시 소나타 6번, 7번, 16번, 17번(템페스트)
- 9/3(일) 6시 소나타 10번, 2번, 22번, 23번(열정)
- 9/5(화) 8시 소나타 11번, 18번, 9번, 25번, 21번(발트슈타인)
- 9/6(수) 8시 소나타 24번, 4번, 13번, 26번(고별)
- 9/7(목) 8시 소나타 27번, 28번, 29번(함머 클라비어)
- 9/8(금) 8시 소나타 30번, 31번, 32번

베토벤 그리고 백건우, 끝없는 여정

지방일정

3 /	29(수)	예산	충남도청문예회관
	31(금)	김해	김해문화의전당
4 /	8(토)	제주	제주아트센터
	11(화)	마포	마포아트센터
	14(금)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22(토)	인천	청라엘림아트센터
	29(토)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5 /	30(화)	대구	대구콘서트하우스
6 /	3(토)	안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9(금)	고양	고양아람누리
	16(금)	이천	이천아트홀
	24(토)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7 /	1(토)	부천	부천시민회관
	4(화)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7(금)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8(토)	안양	평촌아트홀
	13(목)	울산	동구문화예술회관
9 /	15(토)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26(수)	부여	부여박물관홀
	1(금)~8일(금)	서울	예술의전당
	15(금)	동해	동해문화예술회관
	19(화)	부산	부산학생문화예술회관
	22(금)	노원	노원문화예술회관
	27(수)	경주	경주문화예술의전당
30(토)	정읍	정읍연지아트홀	
10 /	14(토)	수원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 별 프로그램 및 티켓가격 상이



STAATSORCHESTER BAYERN MÜNCHEN

독일 깊은 전통의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VINCERO



지휘
키릴 페트렌코
Kirill Petrenko

© Wilfried Hoffmann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

© Felix Löchner



피아노
이고르 레비트*
Igor Levit

© Robbie Lawrence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랍소디 (*협연: 이고르 레비트)
말러 - 교향곡 5번

2017.9.13 [Wed]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VINCERO 후원 PEUGEOT 문의 02.599.5743

티켓 R 30만원 S 20만원 A 12만원 B 7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VINCERO

VINCERO

리카르도 샤이,
그리고 단 하나의 드림팀
역사적인 첫 내한

LUCERNE FESTIVAL

루 체 른 페 스티 벌 오 케 스트 라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베토벤 교향곡 8번,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2017.10.12 Thu 8PM 롯데콘서트홀

주최 VINCERO 후원 PEUGEOT 문의 02.599.5743

티켓 R 40만원 S 30만원 A 20만원 B 10만원 예매 롯데콘서트홀 1544.7744 YES24.COM 1544.6399 인터파크 1544.1555

© Marco Borggreve

© Peter Fischli / LUCERNE FESTIVAL

© Wilfried Hölzl

레비트*
evit

Robbie Lawrence

5

2017 UPCOMING CONCERTS

김선욱 & 드레스덴 필하모닉

Sunwook Kim & Dresdner Philharmonie

일시 2017년 7월 8일(토)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협연 김선욱(피아노)

백건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Kun-Woo Paik <Beethoven 32 Piano Sonatas>

일시 2017년 9월 1일(금)-8일(금)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에른 슈타츠오페라 오케스트라

Bayerisches Staatsorchester

일시 2017년 9월 13일(수)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키릴 페트렌코 협연 이고르 레비트(피아노)

체코 필하모닉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일시 2017년 9월 28일(목)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페트르 알트리히터 협연 이상 엔더스(첼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Lucerne Festival Orchestra

일시 2017년 10월 12일(목) 8PM 장소 롯데콘서트홀

지휘 리카르도 샤이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Sung-Won Yang <Bach Six Cello Suites>

일시 2017년 10월 15일(일) 4PM 장소 롯데콘서트홀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피아노 리사이틀

Khatia Buniatishvili Piano Recital

일시 2017년 11월 1일(수) 8PM 장소 롯데콘서트홀

연광철 & 김선욱 독일가곡의 밤

Kwangchul Youn & Sunwook Kim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빈 심포니

Wiener Symphoniker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필리프 조르당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Mariinsky Orchestra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 8PM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발레리 게르기에프 협연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빈체로 클래식

VINCERO CLASSIC

twitter @_Vincero

facebook

www.fb.com/vincero.kr

Instagram

@vincero_ent

빈체로 02.599.5743

www.vincero.co.kr

1년
ODE
오드
가격

"브

STE
LYN



ODE 1st ANNIVERSARY BRAND FAIR

2017.07.07 ~ 08.13
ODE Maison, ODE Jeju

1년에 단 한번,
ODE 1st ANNIVERSARY BRAND FAIR 기간동안
오드의 하이엔드 오디오를 브랜드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페어 기간동안 오드 매종을 예약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ULTRASONIC THE HEADPHONE COMPANY LYNGDORF Tenor progressive audio

STEINWAY LYNGDORF Bowers & Wilkins KHARMA OMA

ODE

ODE매종 02-512-40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6길 15-6
ODE JEJU 064-799-5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서길 7 제5관
ODE 대구신세계백화점 053-661-6507
대구광역시 동구 산천동 대구신세계백화점 5층
www.ode-audio.com

반체로

VINCERO Arts Management & Entertainment
www.vincero.co.kr